

232만 ‘촛불 혁명’... 민주주의 새 역사 쓴다



금남로 ‘촛불의 바다’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및 구속’ 촉구 6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촛불집회에 15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5만 금남로 가득 메워... 전남 17개 시·군 촛불 밝혀 서울 광화문엔 170만 인파... 박근혜 퇴진 넘어 “구속하라”

‘최순실 국정 농단’에 따른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가 불려온 ‘국민 촛불’은 햇불로 커져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관련기사 2·3·4·6·7면>

지난 3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 인파인 232만 명이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15만명이 운집해 금남로를 가득 메웠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170만명의 인파가 모여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

진을 요구하던 함성은 ‘박 대통령 구속’과 ‘새누리당 해체’로 바뀌었고, 순천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는 햇불이 등장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한 광주시국촛불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6차례 열린 광주 촛불집회 인파로는 주최 측과 경찰 추산 모두 최대 인파로, 전일빌딩부터 금남공원까지 인도와 차도는 들어찬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촛불이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열린 만민공동회에는 각계가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고, 본 행사에서는 박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새누리당, 재벌(삼성·SK·롯데)을 감옥에 하옥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 오후 7시 전국적으로 ‘촛불 소동’이 시작되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은 일제히 촛불을 끄고 ‘박근혜를 구속하라’라는 함성을 외쳤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2개 대열로 나뉘어 금남로 5가까지 행진한 뒤 다시 본부대로 돌아왔다.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이날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시민운동본부’는 목포 5000명 등 전남에서 모두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순천에서는 5000명의 시민들이 햇불과 촛불을 들고 연향동 일대를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에서는 170만명이 운집해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100m까지 에워싸는 집회와 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4·16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416개의 햇불을 들고 집회를 이끌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170만명(경찰 추산 32만명) 등 전국적으로 232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 주최 측 추산 190만명이 모인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 기록을 넘어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탄핵 D-4 ‘폭풍의 1주일’

6·7일 재벌총수·최순실 청문회 與 비주류, 9일 표결 참여 결정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본 궤도에 오르는 등 정국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폭풍의 1주일’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가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의원들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함으로써 탄핵 무드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제2차 기관보고를 청취한다. 대상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다.

6일과 7일에 열리는 1·2차 청문회는 이번 국조의 하이라이트다. 1차 청문회는 이재웅·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 재벌 총수들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선다. 2차 청문회에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차은택 씨와 김기춘·안종범·우병우 등 전직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관료들이 무더기로 증인 채택됐다.

8일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1조 8292억 전남 6조205억원

내년 국비지원1 현안사업 숨통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와 2019 세계수영대회선수권대회 지원 사업비에 대한 국비 예산이 증액됐다.

<관련기사 5면>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요청한 2017년도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 1조 7664억원보다 34건 62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1조 7332억원보다 960억원(5.5%)이 늘어난 1조 8292억원 규모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62건 753억원, 계속사업은 174건 1조 7539억원이다.

국회 예산심의회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130억원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비 15억원이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 20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13건 196억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추가 반영됐다.

전남도의 내년 국고예산 지원 규모는 올해 확보액 5조5884억원보다 4321억원(7.7%) 늘어난 6조205억원이다. 지난 2009년 국비 예산 5조원을 돌파한 이후 8년만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이 정부 예산안보다 1385억원 늘어난 1460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사업은 650억원 늘어난 2211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629억원 늘어난 1449억원 등을 확보했다. 치안·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신안경찰서 신설(12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중형 전환 사업(28억원)이 확정됐고 호남권 직업재활센터 설립 예산도 60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 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특히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